

# 올해 첫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

부안-위도띠뽀놀이 시작으로 임실-임실필봉농악 · 광주-광주칠석고싸움놀이 진행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지원하는 '2021년 첫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한국문화재단의 진행으로 광주·부안·임실에서 펼쳐진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2월에는 전국에서 총 3건의 공개행사가 예정됐다.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능 종목은 전시 위주로, 예능 종목은 무관객 혹은 최소관람 공연으로 진행된다.

▲ '제82-3호 위도띠뽀놀이' (2.14,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 ▲ '제11-5호 임실필봉농악' (2.26,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강운로) ▲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 (2.25.~27, 광주광역시 남구 고싸움놀이테마파크) 공개행사를 만나 볼 수 있다.

'위도띠뽀놀이'는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에서 매년 정월 초사흘날 행해지는 마을 공동 제의다. 남해안·동해안·서해안 별신굿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풍어제 중 하나다.

띠뽀놀이는 바닷가에서 용왕굿을 할 때 띠뽀를 띄워 보내기 때문에 띠뽀놀이라 부르게 됐고, 소원을 빌기 위해 세운 집인 원당에서 굿을 하여 원당제라고도 한다. 수호신을 모신 원당에 올라가 제물을 차리고 굿을 한 후 마을로 내려와 마을의 산을 돌고, 바닷가에서 용왕굿을 하면서 굿이 펼쳐지는 공간이 산과 마을, 바다로 이어진다.

'임실필봉농악'은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에 전승되고 있는 농악으로서 개개인의 기교보다 단체의 화합과 단결을 중시한다. 필봉농악의 농악수들은 흰 바지저고리에 남색 조끼를 입고 삼색 띠를 두르는데, 쇠잡이(쟁과리나 징을 치는 사람)만 상모(털이나 풀이 달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지원하는 '2021년 첫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한국문화재단의 진행으로 광주·부안·임실에서 펼쳐진다.(부안 위도띠뽀놀이 모습) (사진=문화재청 제공)

린 농악에서 쓰는 모자)를 쓰며 나머지는 고깔을 쓴다.

농기, 용기(그릇), 영기(깃발), 긴 쇠나발, 사물(쟁과리, 징, 북, 장구), 밧고(불교 의식 때 쓰는 작은 북), 잡색(대포수, 남자광대인 창부, 양반, 삼태기를 맨 중인 조리중, 쇠재만 든 농구, 각시, 화동과 무동)으로 편성된 임실필봉농악은 힘차고 씩씩한 가락의 진수를 보여준다.

'광주칠석고싸움놀이'는 주로 전라남도 일대에서 정월 대보름 전후에 행해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편싸움 계통의 집단 놀이다. 고싸움의 고란 웃고름, 고틀이 등의 예에서 보듯이 노끈

의 한 가닥을 길게 늘어 동그런 모양으로 맺은 것을 말하며, 2개의 고가 서로 맞붙어 싸움을 벌인다. 고싸움은 풍요를 기원하는 농경 의식의 한 형태며, 놀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다지는 집단놀이로서 의의를 지닌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앞으로도 매월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공개행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단(02-3011-2153)으로 문의하면 일정, 장소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설 맞이 공연으로 '국악으로 여는 새해'를 펼친다.(춘향가 공연 모습) (사진=국립민속국악원 제공)

## 설 맞이 공연 '국악으로 여는 새해'

국립민속국악원, 12일 오후 3시 예원당서 판소리 5바탕 주제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설 맞이 공연으로 '국악으로 여는 새해'를 펼친다.

이번 공연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선보이는 무대로,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와 우리 소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판소리 5바탕을 주제로 선보인다.

내용은 판소리 5바탕인 춘향가 중 사랑가, 심청가 중 부녀상봉, 흥보가 중 화초장, 수궁가 중 토끼 배 가르는 대목, 적벽가 중 불 지르는 대목 등 가장 사랑받는 눈대목만

을 모아 국악연주단과 함께 청극의 진면목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무대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널리 알릴 수 있는 소규모 단막창극으로 만들었으며, 어느 곳에서나 공연이 가능하도록 제작, 관람은 전석무료이며, 신작순 100명에 사전예약제(063-620-2329, 카카오톡 채널)로 운영한다.

왕기석 원장은 "코로나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문화예술기관의 지속적인 활동을 마련하고자 준비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천연기념물·명승 쉽게 설명한 '자연유산 대관' 발간

문화재청이 자연유산을 손쉽게 만나보고 즐길 수 있도록 '자연유산 대관'을 발간했다.

'자연유산 대관'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문화재적 가치, 현황, 사진 등을 수록한 자료집이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에는 지난 2009년 이후 국가지정문화재로 새롭게 지정된 동물분야 '경주개 동경이'를 비롯해 식물분야 '남진면 천 은향나무', 지질분야 '제주 사계리 용머리 해안' 등 천연기념물 40건과, '설악산 대승폭포' 등 명승 46건 등 총 86건의 자연유산 이야기가 담겼다.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야별 자연유산에 대한 지정가치, 지정과 관련된 이야기 등 재밌으면서도 명확한 해설을 실었고

생동감 있는 사진도 수록했다.

자료집에 수록된 정보무늬(QR코드)를 휴대폰으로 인식하면 자연유산 현장 영상과 소리가 재생된다. 정보무늬로 연결되는 자연유산 동영상은 매년 최신 영상물료 꾸준히 갱신할 예정이다.

또 자연유산 정보를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국내 대형 온라인 서적 유통업체인 교보문고, 예스(YES)24와 협약을 맺고 자연유산 전자책(eBook)과 오디오북을 무료로 배포한다.

영문판도 별도로 제작해 주한 외국대사관 113개소, 재외문화원 27개국 32개소, 문화홍보관 9개국 10개소에 배포한다.

/뉴스



자연유산 대관 중 일부 (사진=문화재청 제공)

## 문화재청, 세계유산 특별법 시행

우리나라 세계유산 체계적·효율적 관리 위해

문화재청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832호)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된 세계유산 시행령을 지난 2일자로 제정, 5일부터 시행했다.

세계유산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세계유산협약)과 관련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4일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세계유산의 등재·보존·활용과 지원에 관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시책 또는 계획 ▲세계

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내용과 절차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등이다.

이번 세계유산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관련 정책 강화를 위한 원활한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세계유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등재된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

### 제7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2021년 2월 16일(화)~17일(수)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 주최 - 전주매일 신문

▶ 주관 - 전라북도스키협회

▶ 후원 - 전라북도, 무주군, 덕유산리조트

▶ 대회 신청 문의 - 063)288-9700 (전주매일 본사)

\*\*이 행사는 전라북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